

삼성바이오로직스, 분기 매출 1조 돌파... 영업익 120% '굉충'

1분기 실적발표

CMO 등 글로벌 시장 중형무진
수주활동·생산능력 확대 집중
“고품질 바이오의약품 지속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연간 매출 5조원 시대를 열기 위한 첫 신호탄을 쏘았다.

23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1분기 실적으로 매출액 1조2983억원, 영업이익 4867억원을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11%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19.92% 급증했다. 당기순이익은 37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38% 커졌다.

또 1분기 연결기준 자산 17조4370억원, 자본 11조2801억원, 부채 6조1569억원 등을 기록해 재무 상태도 부채비율 54.6%, 차입금 비율 11.9% 등으로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매출 목표로 전년 대비 20~25% 성장률을 제시해왔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인 수



‘제2바이오캠퍼스’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주 활동과 생산 능력 확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1분기에는 유럽 소재 제약사와 2조747억원 규모의 초대형 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지난해 연간 수주액의 38%에 해당하는 성과다. 지난 2024년 연간 수주 실적은 총 5조4035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늘었다. 앞서 2022년 1조7835억원, 2023년 3조5009억원 등으로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별 비중은 유럽 소재 고객사

65.2%, 미국 소재 고객사 25.8%, 기타 지역 6.0%, 국내 3.0%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부터 핵심 고객사 범위를 글로벌 상위 20위에서 40위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 뉴저지, 보스턴 등에 이어 일본 및 아시아 중요 지역에서도 영업 활동을 확대한다. 주요 고객사와 물리적 거리를 좁혀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발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생산 능력 측면에서는 이달 5공장 본격 가동과 함께 6~8공장 증설 계획으로

새로운 청사진을 펼친다.

이번 5공장 완공은 지난 2023년 4월 착공한 지 25개월만이다. 당초 계획보다 5개월 단축된 것으로, 동일한 18만 리터 규모의 3공장 완공이 약 35개월 걸린 데 비해 약 30% 빨라졌다. 단순 생산 역량뿐 아니라 생산 시설 확충 속도에서도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해 초격차를 이뤄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총 생산능력을 78만4000리터로 확보했고, 오는 2032년까지 5공장과 동일한 규모의 공장 3개를 추가로 건설해 8공장까지 완공 시 총 생산능력은 132만4000리터에 이르게 된다.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한 투자도 이어오고 있다. 항체-약물접합체(ADC) 전용 생산시설이 1분기 가동을 시작했고, 최근 삼성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통해 유망 바이오 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집중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는 생생형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단백질 디자인 기술,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비롯한 중추 신경계 등으로 다양한 것도 특징이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소도 바이오시밀러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K 바이오’ 역량을 강화한다. 삼성바이오에피소는 매출 4006억원, 영업이익 128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에틀로체’, 스텔라 바이오시밀러 ‘에피텍’ 등의 유럽 판매가 주효했고, 미국에서의 신제품 출시에 힘입어 마일스톤 효과 없이도 매출과 영업이익을 큰 폭으로 늘렸다.

삼성바이오에피소는 기존 중앙괴사인자 알파(TNF-α) 억제제 3종(에틀로체, 레마로체, 아달로체)에 이어 인터루킨 억제제(에피텍)까지 보유함으로써 자가면역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글로벌 의약품 시장을 공략해 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 및 연구개발 역량을 극대화하고 적기 제품 출시 및 판매를 통해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을 통한 치료 기회를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SK바사, 모더나 mRNA 특허 장벽 허물어 “집안 냄새 고민, 페브리즈로 해결하세요”

mRNA 특허 무효소송 최종 승소
국내 백신기업 특허 리스크 완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기업 모더나와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며 백신 주권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mRNA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모더나의 ‘변형된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및 핵산 및 이들의 용도’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에 특허 등록된 mRNA 제조 기술은 모더나의 용도 특허가 유일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3년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 약 2년간의 심리 끝에 지난달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정정 적법성, 우선권, 진보성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특허무효 심결을 이끌어냈다. 이후 모더나가 이에 불복하는 심결 취소소송을 기한 내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종 승소로 확정됐다.

모더나의 특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중인 일본뇌염 백신 후보물질 ‘GBP560’을 포함한 여러 mRNA 제조에 핵심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 특허가 부당하게 우선권을 인정받아 과도하게 특허 독점권을 획득함으로써 mRNA 백신 기술 개발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글로벌에선 여전히 다수의 기업들이 모더나와 관련 특허 분쟁을 진행중이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한발 앞서 특허 장벽을 허물며 자체 기술 확보 노력에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향

후 mRNA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국내 기업들의 특허 리스크까지 완화함으로써,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서 지난 2월 ‘GBP560’의 글로벌 1/2상 임상시험에 착수하며 국내 기업을 선도하는 mRNA 백신 개발 속도를 보이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402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이번 임상은 ‘GBP560’ 접종 후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후 내년 중간 결과를 확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에 적용돼 처음 상용화된 mRNA 백신 플랫폼 기술은 유전자 염기서열을 활용해 기존 플랫폼 대비 신속한 대량생산 체제 구축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한국P&G 관련 사용으로 빠른 탈취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가벼운 옷차림과 외출이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미세먼지와 일교차로 인해 환기를 자주하기 어려운 날이 많아지면서, 실내의 쾌적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집 안 곳곳에 남아있는 냄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다.

23일 국내 유통 업계에 따르면, 한국 피앤지사는 다양한 냄새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탈취 브랜드로 페브리즈를 선보인다.

대표 제품인 ‘페브리즈’는 분사형 섬유 탈취제로, 빠른 탈취가 필요한 경우에 옷이나 침구에 간편하게 뿌리면 된다. 페브리즈만의 탈취 기술은 3단계로 설계돼 나쁜 냄새를 중화하고, 가두고, 끌어낸다. 냄새를 단순히 덮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냄새 원인을 없애는데 중점을 뒀다.

‘다우니X페브리즈’는 탈취 기능에 향기까지 더해진 제품이다. 냄새로 인



‘페브리즈’ 탈취 제품군

/한국P&G

한 찻집함을 해결하면서 최대 48시간 향을 전달한다.

‘페브리즈 비치형’ 2종은 방향제 형태로 간편한 사용법이 장점이다. 집안 곳곳 놓기만 하면 교체 없이 최대 6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화장실용은 탈취 성분을 기존 제품 대비 2배 함유하고 있어 강력한 효과를 갖췄다.

페브리즈 브랜드 관계자는 “용도와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 생활 속 냄새 고민은 털어내고 기분 좋은 일상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동아쏘시오그룹, 자사주 매입 등 주주친화 정책 실천

“매년 현금·주식 등 배당 노력”

동아쏘시오그룹이 주주 친화 정책을 적극 실천하며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23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동아쏘시오그룹 임원들은 자사주 매입을 시행하고 있다. 이달 들어 전문의약품 전문기업 동아에스티의 이대우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김학준 사외이사가 장내 매수에 나섰다.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에서는 김민영 사장이 1000주 넘게 추가 매입했고, 고승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이남용 사업부장도 자사주를 매입했다.

지난 달에는 원료의약품 전문회사에

스티팜의 김이환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약 7600만원 규모의 자사주 1000주를 장내 매수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다양한 정책으로 주주들과 기업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주주들의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 3월 열린 ‘제7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 절차와 관련된 정관 변경의 건을 다뤘다.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가 배당을 결정한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서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결산배당 기준일을 정관변경 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결산

배당, 분기배당 모두에서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는 각각 개최한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을 통과시켜 2025년 회계연도 결산배당부터 주주들이 비과세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당 재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매년 현금 및 주식 배당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GC녹십자, ‘지씨플루’ 594만 도즈 수출

태국 국가입찰 수주... GPO 등 공급

GC녹십자는 독감백신 ‘지씨플루(GCFLU)’가 태국 국영 제약사인 GPO와 질병통제국(DDC)의 입찰 및 민간 시장 포함 총 594만 도즈의 물량을 공급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태국으로 진출한 이래 역대 최대 수주 규모다.

태국은 남반구와 북반구에 걸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의 독감백신 접종 지침을 모두 적용 받는

국가다. 이에 따라 연중 지속적으로 독감백신 공급이 필요한 시장으로 꼽힌다. 이번 입찰에서 GC녹십자는 GPO의 남, 북반구 입찰 및 질병통제국을 포함한 태국 정부의 국가 입찰을 수주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우진 GC녹십자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백신 수출 지원 및 국가출하승인 일정 단축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힘입어 해외 수출 계약 체결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